

2020년 교회 표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 사도신경

| 찬 송 449장

| 기 도

| 성경본문 창세기 1장 28절, 로마서 8장 19절 ~ 21절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롬8:19~21 19.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 삶 나누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일상 중에서 가정과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나누기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하고 힘들어 하며 산업은 정지되고 왕래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지구 전체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인도북부 히말라야 산봉우리들이 장관으로 펼쳐지고 우리 나라도 대기질이 좋아졌음을 절감합니다.

그 동안 지구는 물질문명으로 인해 심각하게 병들어 2018년 여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지구적 불볕더위가 덮쳐 북극권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 2만 년 동안 녹지 않았던 지구의 마지막 빙하가 무너졌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38cm 폭설이 내렸고 미국 워싱턴의 가을기온은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물질문명의 삶의 방식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우리에게 화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삶의 방식을 바꾸려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환경론자들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문명과 사고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끝없이 문명과 개발을 확장해가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먹이쇄사슬의 정점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포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당당히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은 인간중심적이어서 인간 외에 지구상에 크고 작은 생명체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피조세계를 선택한 청지기가 되어 잘 가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즉 다섯째 날에 만든 모든 생명체인 하늘의 새, 바다생물체, 들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창1:22) 하셨습니다.

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생명체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번영하고 생육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고 멸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명령에서 다스린다는 단어의 원어[라다]의 의미는 ‘리더십을 발휘하되 타자를 섬기고 생명력을 복돋워 주면서 서로가 성장해간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피조세계를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잘 가꾸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죄와 악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에덴동산을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땅은 저주받아 영경귀가 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조성되어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됩니다.(창3)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에 있는 생명의 영역은 위축되고 그로 인해 피조세계는 죄와 악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구원하시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의 구속과 타락의 역사 그리고 거기서 죄로 타락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이 자연을 적대시하면서 나타난 피조세계의 아픔을 바르게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롬 8:19)

즉 십자가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탐욕으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아들로 인해 종노릇하는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생명을 얻고 성장해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에 의해 자연은 끊임없이 유린을 당하고, 자기들 안에서도 사슴떼는 두려움에 가득차서 표범에 쫓기며 살아가듯 죄와 악에 의해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이 끝을 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그 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분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하며, 그 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자연을 훼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배려하시는데 나는 자연에게 무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정원으로 삼아 음미하시며 거니시는데 내가 그 정원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정원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대하는 마음은 사회문제라기 보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개발도 해야 하고 문명도 발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인 이 자연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보며 자연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1.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2.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봅시다.
3. 그 외에 이번 공과 말씀에서 받은 은혜, 도전, 격려 혹은 위로가 있다면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합니다.